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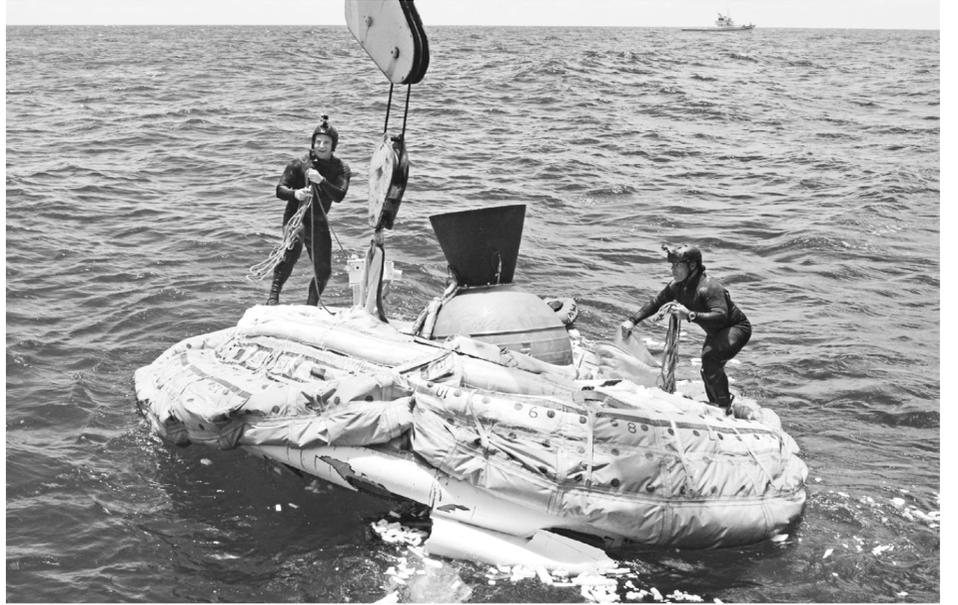
# 집단지위권 등 아베 안보법 위헌 논란

## 국회 참고인 출석 헌법학자 전원 '위헌' 표명 파장 여당서도 우려...고노 전 장관 "법안 재검토" 압박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지위권 행사 등의 안보 구상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아베 내각이 작년 7월 집단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 해석을 바꿀 때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헌법학자 전원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을 계기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달 4일 종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자민당 추천을 받은 하세베 야스오(長谷部 恭男) 와세다(早稻田)대 교수를 비롯해 교수 3명이 모두 이번 법안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안보법제 정비에 따른 자위대의 활동 확대가 국의 무력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무력행사를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헌

논란을 수습하려고 9일 안보 관련법의 제·개정안 헌법에 대한 그간의 정부 해석과 합치하며 법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제1야당인 민주당에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내각관방과 내각법제국 이름으로 된 문서에서 집단지위권 행사를 위한 조건(새로운 무력행사의 3요건)이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에 해당한다며 합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가쓰마 야키라(長妻昭) 민주당 대표대행은 "종래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없는 한 좀처럼 합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여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안보 법안 심의에 관해 "조금 엄중한 상황이 펼쳐

지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전후 70년을 주제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와 공개대담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도 안보법안 심사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자민당 총재와 종의원 의장까지 지낸 고노 전 장관은 "정부가 일단 이들 법안을 물린 뒤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며 아베 정권을 압박했다. TV 아사히의 간관 뉴스 프로그램인 '보도 스테이션'이 헌법학자를 상대로 실시 중인 설문조사의 중간 집계 결과 안보 법안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학자는 45명, 위헌이 의심된다는 학자는 4명이었다. 이에 반해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힌 학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은 위헌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여당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24일까지로 예정된 정기 국회 회기를 한 달가량 연장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화성행 우주선 착륙 시험 속기(LDSD) 시험이 지난 8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진행됐다. 나사(NASA)는 더 규모가 큰 화성 우주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안전한 착륙을 보장해 줄 감속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실패했다고 나사 관계자들이 9일 밝혔다. 사진은 감속장치를 회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한일 국장급 오늘 도쿄서 위안부 논의

한일 양국은 1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협의를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지난 3월16일 서울에서의 제7차 협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이번 협의는 오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코앞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가능할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에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한 운병세 외교부장관의 방일 및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곧 종전 70주년을 계기로 한 아베

총리 일본 총리의 8월 답화(아베답화)와 나아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사과 및 배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국 위안부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왔다. 지난 7차 협의 직후 정부 당국자는 "양국 상호 간에 자기 입장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단계는 넘어서었다." /연합뉴스

## 214명 잡은 '여우사냥' 中, 국외도피 경제사범 검거

중국 정부가 국외도피 경제사범에 대한 대규모 검거작전을 통해 올해에만 총 214명을 검거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4월 시작한 '여우사냥(獵狐) 2015' 작전을 통해 5월 말 기준으로 자수자 78명을 포함한 국외도피 경제사범 21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0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부패·비리를 저지른 경우는 27명이었고 범죄인 인도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경우는 3명이었다. 중국은 올해도 여우사냥 작전을 재개하면서 국외도피범 100명까지 공개 수배하며 검거 작전 수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베이징(北京) 당국은 7년 이상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수배범 순(孫) 모씨를 최근 캄보디아에서 체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검거된 경제사범 가운데는 한국에 도피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자수한 사기범도 있어 주목을 받았다. 명칭평(孟慶豐) 중국 공안부 부장조리는 최근 지방정부 책임자들을 소집해 개최한 '여우사냥 2015' 좌담회에서 중앙과 지방간 협력 강화를 통해 앞으로도 도피사범 검거와 장물 회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 美 백악관 폭탄 협박 소동

미국 백악관과 상원 건물에 9일(현지시간) 폭탄 테러 위협이 신고돼 한때 긴급 소개령이 내려졌다. 비밀경호국(SS)은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정래브리핑을 하고 있던 이날 오후 2시에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브리핑room에 있던 모든 기자에게

밖으로 대피할 것을 지시했다가 40여 분 후 다시 비상조치를 해제했다. 브리핑room과 함께 노스론(북쪽 잔디광장) 구역도 한때 봉쇄됐다. CNN 방송은 폭탄테러 위협 때문에 소개령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브리핑room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집무실에 머물고 있었으나 대피하지는 않았다고 어니스트 대변인이 설명했다. /연합뉴스

## 가방 훔쳤단 누명 쓰고 재판없이 3년 복역한 흑인 청년 출소후 자살

어두운 미국

백팩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소년범 교도소에 3년 간 재판도 없이 갇혀 있으면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던 미국의 흑인 청년이 출소 후 끝내 죽음을 택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9일(현지시간) 지난해 미국의 '고장난 사법시스템'을 웅변적으로 보여줬던 22세 청년 칼리프 브라우더의 자살을 비추어 줬다. 뉴욕 브롱크스에 거주하는 브라우더는 16살 때인 2010년 백팩을 훔쳤다는 혐의로 체포돼 약 6년 높은 소년범 감옥인 뉴욕 '라이커스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한 번도 재판

을 받지 못했다. 교도소 3년은 그저 재판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었다. 가난한 가족은 보석금 3000달러를 내주지 못했다. 그는 3년 중 2년을 독방에 갇혀 있었다. 4년 자살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는 이곳에서 교도관들과 다른 소년범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구타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에 대한 집단구타 장면은 지난해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검찰이 그에게 '사전형량조정'(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제도)을 제의했지만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거절했다. 검찰이 2013년 공소를 기각하면서 그는 풀려났다. /연합뉴스

그러나 브라우더가 이후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은 험난했다. 독방 수감으로 심해진 피해망상과 불안 증으로 그는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런 사연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커뮤니티대학으로 전학한 그에게 등록금 후원자가 나타났고, 그는 한동안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를 취재했던 '뉴욕커'지의 기자는 그가 출소 직후 자신의 침실에서 나오지 않는 등 스스로 독방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었다며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몹시 불편해 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를 던져버리는가 하면, 창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녔고, 경찰이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등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렸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그는 지난 6일 그는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날 밤 어머니에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연합뉴스

## 이상한 미국 "영국에도 生탄저균 잘못 배달"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영국에도 살

대상 시설이 68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영국 보건안전청(HSE)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07년 영국의 한 연구소에 탄저균이 배달됐다고 밝히고 해당 연구소가 실험 후 탄저균을 파괴한 만큼 더이상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 국방부는 당초 탄저균 오배송 지역이 한국·호주·캐나다 3개국과 미국내 19개 주라고 밝혔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오배송 대상 시설이 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주 탄저균 오배송 문제가 애초 보고된 것보다 심각하다고 인정했지만 밀폐해 포장한데도 농도도 낮아 이들 탄저균이 대중 보건에 미치는 위험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h3>신축 원룸 매매</h3> <p>전대정문 2분! 후문 2분(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은 / 임대 걱정없음</p> <p>룸12개, 올 대리석시공, 신축 (1층룸 1개, 2~3층룸 10개, 4층주책 1개, 옥탑) 옥상에 파라솔 설치</p> <p>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북구 문흥동 톨14개 월수익 4302</li> <li>② 북구 용봉동 톨30평 건150평 월수익 450만 가능 매매가 8억</li> <li>③ 북구 문흥동 전대후문 5분거리 월수익 540만 매매가 8억5천만</li> <li>④ 서구 생촌동 원룸 11평 30평(보1천 월수익302만) 매매가 3억500만</li> <li>⑤ 남구 백운동 대항 1차 APT 24평 보1천 월60만 가격저렴 매매가 1억1천500만</li> <li>⑥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 보5백 월 50만 매매가 9천만</li> <li>⑦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9평 보 5백 월 42만 매매가 8천만</li> <li>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3평 보 3백 월 32만 매매가 5천만</li> </ul> <p>010-6832-9700 010-6834-4800</p>	<h3>상가건물매매</h3> <p>&lt;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gt;</p> <p>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p> <p>※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p> <p>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서구 화정동 영주사거리면 3층건물(1층상가,2층상가,3층주책) 매매가 7억2천만</li> <li>② 수원지구 모이벨기앞 4층중 3층 85평 월수익 170만 매매가 4억</li> <li>③ 수원지구 수원동 3층건물 신축 토지144평, 건280평 월수익 800만, 매매가 16억</li> <li>④ 서구 상무지구 정영 3층 상가 30평(보1천 월70만 수익) 매매가 1억 3천만</li> <li>⑤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 1천 8백 매매가 20억</li> <li>⑥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45평 보 1천 월 60만 수익 매매가 1억1천만</li> </ul> <p>010-6670-9800 010-6834-4800</p>	<h3>(주)대신경매</h3> <p>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p> <p>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서구 권호동 7층상가토180㎡,건285㎡/건정가 6억6천→최저가 2억9천</li> <li>2.광산구 월계동토42㎡,건135㎡/건정가 2억→최저가 1억4천(청년대상)</li> <li>3.북구 신원동 오피스텔토64㎡,건24.8㎡/건정가 2억4천→최저가 1억2천3백</li> </ul> <p>수익성상가 (근린주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여수시 교동토180㎡, 건259㎡/건정가 13억→6억9천</li> <li>2.담양 금성면토9200㎡,건882평/건정가 27억→최저가 9억9천</li> <li>3.담양 남면토1427㎡, 건1251평/건정가 32억→최저가 7억4천</li> </ul> <p>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화순읍 삼천리 2층건물토735㎡,건476㎡/건정가 77억→최저가 49억(롯데마트)</li> <li>2.담양읍 금성면토9200㎡,건882평/건정가 27억→최저가 9억9천</li> <li>3.순천 4층건물토206㎡,건221평/건정가 4억2천→최저가 3억</li> </ul> <p>직원 구함</p> <p>경매직원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분!!</p> <p>010-7384-7800 / 010-6670-9800 / 062-226-4600</p>	<h3>상가임대</h3> <p>&lt;상무지구&gt;</p> <p>상무지구 5층사무실·임대 (현, 학원운영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평수 : 100평 (분할가능) 5층 전체사용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 (시설완비,즉시입주가능) (엘리베이터 완비, 주차 3대 무료, 금용가도로 바로 이면코너)</li> <li>②평수 50평-보증금 2천만 월 70만</li> </ul> <p>상무지구 롯데마트옆 (수림오피스텔) 6층 즉시입주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605호 → 19평 보300만 월40만</li> <li>④606호 → 23평 보300만 월42만</li> <li>⑤614호 → 13평 보200만 월32만</li> </ul> <p>010-7384-7800 062-527-7600</p>	<h3>경매</h3> <p>실전교육반모집</p> <p>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매매,임대,개발기획까지) → 노후대비 적합</p> <p>010-2699-5300 062-382-5500</p> <p>경매직원모집</p> <p>경매컨설팅 같이 근무할 직원 모집합니다.</p> <p>남, 여 직원 모집합니다! 부동산 기획개발까지 배우실분</p> <p>062-382-5500 010-2699-5300</p>
--	---	--	--	--